

##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관통합 2년만에 최우수기관으로 성장한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001년 산업기술정보원(KINITT)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의 통합 후, 명실공히 새로운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 기관통합 2년만에 최우수 기관(1등)으로 받돋음 하면서 역사적인 개원 2주년을 맞이했다.



▲ 조영화 원장이 KISTI 개원 2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03. 5. 23)

개원 2주년을 맞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5월 23일(금) 오전 11시 본원 강당에서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본 기념식에는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장을 비롯하여 원내·외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병권 이사장의 축사와 조영화 원장의 기념사에 이어 경과보고 및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양병태 책임연구원이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상을 수상했으며 최윤수 선임연구원이 발전상을, 이상호 선임연구원 등 8명이 성취상을, 김성우 선임연구원 등 10명이 기여상을, 송연식 연구원 등 5명이 우수과제 공로상을 각각 받았다. 한편 정보마케팅실, 그리드연구실, 정책연구실 등 3개 부서는 우수부서상을 수상했다.



▲ 조영화 원장 개원식 장면



▲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장의 축하 장면

조영화 원장은 개원 2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2년동안 이룩한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첫째, 통합후 기존 양기관의 연구사업체계를 대대적으로 통합·조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체제와 슈퍼그리드 인프라체제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6개 담당 기능별로 계관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과거 DB 정보유통 중심에서 벗어나 심층 분석정보에 대한 서비스체제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와 산업기술정보가 상호 연계되는 R&D 토털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기술과 산업이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세계 4위 규모의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을 완료하여 우리나라 첨단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가 그리드 프로젝트 등 차세대 국가연구개발 체제를 선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미래전략형 응용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넷째, 미래 정보수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사업추진기반을 확대·정비하고 특히 반도체 이후의 신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슈퍼컴퓨팅 사업과 연계한 바이오인포매틱스 사업 및 정보분석 사업과 연계한 나노 및 부품소재 정보사업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다섯째, 기관운영부문에 있어서도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통합정비하고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착하는 등 신진형 기관운영체제를 확립하였다"고 밝히고,

"우리모두 힘을 합쳐 최우수기관을 정착하는데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기술이사장의 우수직원 표창장 수여식에 임하는 임병태 책임연구원



▲ 조영화 원장의 우수우수 수여식에 임하는 정책연구실 이장희 책임연구원